

## 2025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27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신지은	도서명	이방인
학번	2413021	저자명	알베르 카뮈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처음 이 책을 선정할때는 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었다. 나는 이방인 말고 다른 책을 원했으나 과반수 선택으로 인해 이방인이 우리 독서모임 도서로 선정되었다. 내가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큰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고 고전 소설이라는 점이 아직 나에게 진입장벽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기회로 고전 문학을 접해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참여해보려 노력했다.

###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이방인』은 뫼르소라는 인물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룬 이후에도 슬픔에 잠기지 않고 여자와 유희를 즐긴다. 그 이후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비난받으며 결국 사형을 선고받는다. 작품은 뫼르소의 무감정한 태도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이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삶의 무의미함을 날카롭게 그려낸다. 뫼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삶과 자연에 대한 평온함을 느끼며 마무리된다.

###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처음에는 뫼르소가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없는 인물이라 놀라웠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무덤덤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애정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그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읽다 보면 그가 단순히 감정이 결여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회가 기대하는 감정 표현이나 도덕적 규범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며,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뫼르소가 사형을 앞두고 세상의 아름다움, 태양과 밤하늘, 자연을 느끼며 평온함을 찾는 모습이였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덤덤하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진정으로 삶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 책은 나로 하여금 인간이란 무엇인지, 진실된 감정과 사회의 기대는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전이 왜 오랜 시간 사랑받는지를 체감하게 해준 작품이었다.

###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세계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철학적 사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 고전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 [서평 침삭 및 제출 방법]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내외국인 표현능력상담](#) 프로그램 신청 ▶ 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 서평 본문 및 침삭과정(상담 신청 캡처, 침삭메일 등)을 PDF파일 1개로 합쳐 E-CLASS 커뮤니티 제출